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으로…2030년까지 1850억 투입

산자부,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기술 자립화 본격 추진

조현준 효성 회장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당부

정부가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제2의 철강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복합재 기술 고도화에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고강도·경량 중간재로,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다.

낚싯대부터 건축 자재, 자동차, 항공기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격이 2배 가량 비싸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소재의 무게 절감 기술이 중요한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2030년 탄소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40년에는 3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 자립화와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2030년까지 총 18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8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효성 탄소섬유 공장 등에서 고강도 탄소섬유(인장강도 6.4GPa) 양산 체제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철보다 15배 강한 초고강도 탄소섬유와 13배 강한 초고탄성 탄소섬유는 2028년까지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의 탄소복합재 생산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인증 지원을 제공한다.

관련 기업 대출에 대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기업이 시세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제공하고, 1억원 한도로 탄소복합재 국제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회의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섬유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효성은 정부 지원으로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주항공과 방산 등에 사용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기업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정부에 "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며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탄소복합재 내재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복합재 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조현준(왼쪽) 효성 회장이 6일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윤혁(오른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에게 효성의 탄소섬유를 소개하고 있다. 〈효성 제공〉

알립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2년 12월 7일(수) ~ 2023년 1월 31일(화)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KB국민은행 551-01-1289-075
NH농협은행 609-01-08827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062-222-3566)
■ ARS번호 : 060-700-1212 (한 통화 3천원)
■ 문자기부 : #9004 (문자 1통 2천원)
■ 문 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2020년 12월 7일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신규확진 7만7604명…83일만에 최다

지난달 중순 이후 증감 반복…광주·전남 4731명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83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전남도 일주일여만에 4000명대를 다시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7604명 늘어 누적 2740만8854명이 됐다고 밝혔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의 3.4배로 급증했다. 지난 9월 14일(9만3949명) 이후 83일새 가장 높은 수치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7만1476명)과 비교하면 6128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7만2873명)보다는 4731명 각각 많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광주·전남도 이날 광주 2020명, 전남 2469명 등 4489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4085명이 발생한 지 8일만에 4000명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광주에선 주말 사이 줄어든 검사 건수가 회복하면서 직전일보다 1202명이나 더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40대와 7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743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 5명을 포함해 16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에선 기존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782명으로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12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3.6년

1년전보다 0.1년 증가…남자 80.6년·여자 86.6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기대 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늘었다.

작년 기대수명의 증가 폭은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2018년(0.05년 증가) 이후 가장 작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추정한 통계표다. 최근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면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사망 원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은 1.6%로 2020년 0.3%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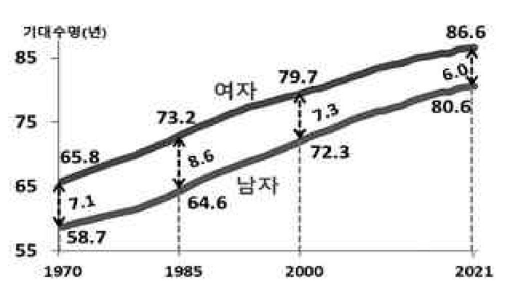
남자의 기대수명이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남녀 격차는 6.0년이었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사망원인 가운데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0.1%로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원인별 사망 수준이 앞으로 유지된다면 출생아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말한다.

남자는 암(25.4%), 폐렴(10.0%), 심장 질환(9.5%) 순으로, 여자는 암(15.6%), 심장 질환(12.3%), 폐렴(8.1%)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다.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21년〉



남녀 기대수명 연도별 추이 〈통계청 제공〉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 더 높았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2005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2003년에 각각 OECD 평균에 도달한 이후 줄곧 해당 수준을 웃돌고 있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6.0년)는 OECD 평균(5.4년)보다 0.6년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경매직전 물건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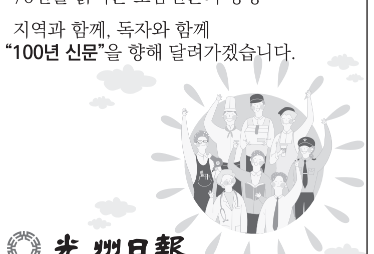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92(효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3605-8564

주식액면 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2년 12월 0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을 5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 주식액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과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암로 163-5
대표이사 김 태 호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앙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봉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운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